

[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 [22~25]

(가)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나)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둑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다)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즉 '도둑질은 옳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라)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인 감

정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 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한 쪽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과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마) 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둘째, ㉤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셋째,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도 없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 배치된다.

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구별하고 메타 윤리학의 두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정서주의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④ (라) : 도덕 실재론의 장점과 의의를 정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마) : 정서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해 연구한다.
- ②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와 직접 연결된다.
- ③ 정서주의에 따르면,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의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④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 ⑤ 도덕 실재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승인 감정에 의해 '옳음'의 태도를 표현한다.

3.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도덕적 판단의 변화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 없다.
- ② 감정도 수시로 변하고, 도덕적 판단도 수시로 변한다.
- ③ 도덕적 판단과 달리 감정이 바뀔 때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 ④ 감정 없는 사람도 없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 ⑤ 감정과 달리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A는 정서주의자이고, B는 도덕 실재론자이다. 두 사람은 모두 '옳음'과 '옳지 않음'이 각각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응한다고 본다. 또한 다음 두 예술적 판단에 대해, A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정서주의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B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ㄱ) 예술작품 △△는 아름답다.  
 (ㄴ) 예술작품 △△는 아름답지 않다.

- ① A와 B는 모두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 ②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겠군.
- ③ A는 (ㄱ)과 (ㄴ) 중 하나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④ B는 (ㄱ)과 (ㄴ) 중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⑤ B는 (ㄱ)과 (ㄴ)은 모두 예술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겠군.

5. ㉠~㉡의 사전적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 판별하여 결정함.
- ② ㉡ :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
- ③ ㉢ : 서로 의견이 일치함.
- ④ ㉣ :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 놓음.
- ⑤ ㉤ : 서로 반대되어 어긋남.

[1~5]

문장 단위 사고 교정 - #1문단

(가) 우리는 일상에서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2문단

(나)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 규정하는 것이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둑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 #3문단

(다)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도덕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즉 '도덕질은 옳다'는 판단은 도덕질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덕질은 옳지 않다'는 판단은 도덕질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 #4문단

(라)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부인 감정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이에 비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그래야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된다.

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㉔ 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한 쪽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과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 #5문단

(마) 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㉕ 제기될 수 있다.

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둘째, ㉖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셋째,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도 없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㉗ 배치된다.

[1~5]

### 문장 단위 해설 - #1문단

(가) 우리는 일상에서 '악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도덕적 판단을 한다.

바로 예시가 등장합니다. 일상에서 '악자를 돕는 것은 옳다'와 같은 판단을 하는 것이 도덕적 판단이고, 우리는 이러한 판단을 당연히 하죠.

이렇게 구체적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 문제를 다루는 것이 규범 윤리학이라면, 옳음의 의미 문제, 도덕적 진리의 존재 문제 등과 같이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이다.

앞에서 나온 예시가 역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다루는 윤리학을 규범 윤리학,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등에 대해 다루는 것은 메타 윤리학입니다. 정의 체크하고 넘어 가야해요.

메타 윤리학에서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 상반된 주장을 펼친다.

메타 윤리학이 다시 세분화됩니다!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로 나누어지네요. 이 두 가지 입장은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과 도덕적 진리의 존재 여부에 대해서 각기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해요. 비교지점 잡읍시다. 그럼 두 입장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에 포커스를 맞추어 읽어야겠죠? 두 가지 메타 윤리학을 이해하는 게 화제인가 봅니다.

### #2문단

(나)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를 과학적 판단 및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본다.

먼저 도덕 실재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서술의 초점을 '도덕 실재론'으로 잡고 들어갈게요. 애네는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가 과학적 판단과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 봐요. 정확히 이해하긴 어렵습니다,

즉 과학적 판단이 '참' 또는 '거짓'을 ㉠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이때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처럼,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라고 ㉡ 규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재진술이 나오네요. 과학적 판단은 '참'과 '거짓'을 판정할 수 있는 명제를 나타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를 과학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도덕적 판단도 똑같다는 거예요.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할 수 있는 명제이고 '참'으로 판정된 명제가 곧 도덕적 진리인 거예요. 참, 거짓의 명확한 판단이 가능하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도덕//실재론인가 봐요. 참, 거짓이 '실재'한다!

그런데 도덕 실재론에서 주장하듯, '도둑질은 옳지 않다'가 도덕적 진리라면, 그것이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을 도둑질에서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떠한 행위가 참임을 판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을 그 행위에서 찾아내야 해요. 위에 예로 있다시피 '도둑질은 옳지 않다'에서 '도둑질'이 옳지 않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실재하는 성질인 '옳지 않음'을 찾아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옳다', '그르다'와 같은 도덕 판단은 아주 추상적입니다. 추상적인 것에서 객관적인 성질을 찾기란 쉽지 않겠죠?

### #3문단

(다) 한편 정서주의에서는 어떤 도덕적 행위에 대해 도덕적으로 옳음이나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라는 성질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번엔 정서주의로 넘어옵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비교지점 잡을 준비합니다. 애네는 도덕 실재론과 반대로 도덕적으로 옳거나 옳지 않은 것은 '객관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리고 도덕적 판단도 참 또는 거짓으로 판정되는 명제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진리의 실재 여부'를 비교지점으로, 완전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따라서 정서주의에서는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도덕 실재론과 달리 과학적 진리와 같은 도덕적 진리는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그렇기에 정서주의에서도 '옳다' 혹은 '옳지 않다'는 도덕적 판단을 내리지만, 이는 과학적 진리와 같은 성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실재하지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정서주의에서는 옳음이나 옳지 않음의 의미를 무엇으로 볼까?

그럼 정서주의에서는 옳음과 옳지 않음을 어떻게 보는 걸까요? 이 물음에 대한 답이 정서주의의 핵심이겠습니다.

도둑질과 같은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한다.

정서주의는 그 행위에 대한 '감정'과 '태도'가 곧 옳음과 옳지 않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서/주의인 거네요. 우리가 행위를 보고 느끼는 감정과 그 행위를 대하는 태도가 옳음과 옳지 않음의 근거라는 거죠.

즉 '도둑질은 옳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둑질은 옳지 않다'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한다.

재진술 문장입니다. '도둑질은 옳다'라는 판단에서는 도둑질에 대한 승인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둑질은 옳지 않다'라는 판단은 도둑질에 대한 부인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서주의입니다. 인간의 정서에 집중하는 입장인 것이죠.



#### #4문단

(라) 이런 정서주의에서는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에 대해 도덕 실재론보다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정서주의적으로 판단하면 도덕 실재론에 비해서 도덕적 판단이 윤리적 행위를 하도록 동기부여하는 것을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간단히 설명하는지가 이 문단의 핵심이겠죠? 이것 알아보겠다는 생각과 함께 넘어갑시다. 그리고 정서주의의 핵심이 '감정'이라는 점도 같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도덕적 판단이 나타내는 승인 감정 또는 부인 감정 이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서주의의 설명이 더 간단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동기 부여를 설명할 때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 외에 설명할 것이 없기 때문이에요. 도덕 실재론은 과학적 판단처럼 접근해야 하는데 정서주의는 감정만 설명하면 되거든요. 결국엔 '감정'이 포인트입니다.

사실상 '정서주의'가 설명을 간단히 할 수 있다는 건 '속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해하는 데에는 정서주의의 정의(핵심)가 중요했죠. '감정'이라는 포인트 정의를 바탕으로 속성을 납득하는 건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꼭 기억해주세요.

승인 감정은 어떤 행위를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길 욕망하는 것이기에 결국 그것을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까지 직접 연결된다는 것이다.

승인 감정의 정의와 함께 정서주의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좋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기를 욕망하기에 해야 한다는 동기 부여로 바로 연결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엔 도덕적 판단에 감정이 핵심이라는 말이에요.

부인 감정도 마찬가지로 작동한다.

부인 감정도 승인 감정과 마찬가지로 작동합니다. 그럼 부인 감정은 어떤 행위가 좋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고, 그것이 일어나지 않기를 욕망하는 거겠죠. 재진술입니다.

이에 비해 도덕 실재론에서는 도덕적 판단 이외에도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도덕 실재론은 도덕적 판단 외에도 인간의 '욕망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해요. 감정 이외에 '욕망'도 같이 이해해야 합니다. 복잡하네요.

예컨대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와 같이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 한다.

예시가 등장합니다. '약자를 돕는 것은 옳다'에 덧붙여서 '사람들은 약자가 어려운 처지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추가해야만 동기 부여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도덕 실재론에서 말했던 과학적 성질과 같은 객관적 성질이겠죠?

그래야만 도덕 실재론에서는 약자를 돕는 윤리적 행위를 해야겠다는 동기 부여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법칙'과 같이 실재하는 대상을 이해해야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감정만 있으면 되는 '정서주의'와의 차이점 계속 기억하셔야 해요.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을 쉽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에 그것 없이도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를 설명할 수 있는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된다.

인간의 욕망과 감정에 대한 법칙은 쉽게 확보할 수 없어요. 지금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대한 법칙을 여러분들이 확보하려고 해봐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에 정서주의보다 동기 부여를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그런 이유로 정서주의는 도덕 실재론에 비해 높이 평가됩니다. 쉽게 납득할 수 있는 문장입니다. 결국에는 '감정'만 있으면 된다, 간단하다는 그 포인트를 설명하는 거예요.

또한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승인 감정과 부인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는 정서주의에 따르면 사람들 간의 도덕적 판단의 차이도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다.

또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감정의 표현으로 이해하기에 사람들 간 도덕적 판단의 차이에 대해서도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당연히 어떤 사람은 좋고(승인 감정), 어떤 사람은 싫기(부인 감정) 때문에 차이가 있겠죠?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 서로 ㉞ 합의하지 못하는 의견 차이에 대해서도 굳이 어느 한 쪽 의견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이 서로 감정과 태도가 다를 뿐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아주 당연합니다. 말 그대로 감정과 태도가 다른 거예요. 승인 감정이나 부인 감정이나!

이런 설명은 도덕적 판단의 차이로 인한 극단적인 대립을 피할 수 있게 해 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간단한 의의입니다. 이 정도는 쉽게 납득할 수 있겠죠?

## #5문단

(마) 하지만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감정과 동일시하는 정서주의에도 몇 가지 문제점이 ㉠ 제기될 수 있다.

앗 그런데 이번엔 또 정서주의의 문제점을 제시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야겠습니다. 서술의 초점 잡고 들어갈게요.

첫째, 감정이 변할 때마다 도덕적 판단도 변한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 판단은 수시로 바뀌지 않는다.

감정은 바뀌지만, 도덕적 판단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게 문제입니다. 왜 문제인지는 쉽게 납득할 수 있어요. 정서주의는 '감정'을 가지고 도덕적 판단을 설명했는데, 그 감정과 도덕적 판단이 다르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죠. 감정이 바로 도덕적 판단으로 연결되지 않을 수 있는데요.

둘째, ㉡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변할 수 있지만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다.

그리고 사람의 감정은 아무 이유 없이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런데 도덕적 판단은 뚜렷한 근거 없이 바뀔 수 없습니다. 앞에서 말한 문제점과 비슷한 포인트입니다.

셋째, 감정이 없다면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도 없다고 해야 하지만, '도덕적으로 옳음'과 '도덕적으로 옳지 않음'이 없다는 것은 보편적 인식과 ㉢ 배치된다.

이번에도 똑같은 포인트입니다. 감정과 도덕적 판단이 다르다는 걸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정서주의의 핵심을 정면으로 받아치는 비판점입니다.

1. (가)~(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④**

- 사실상 지문 해설 그대로 묻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 선지만 보겠습니다.

④ (라) : 도덕 실재론의 장점과 의의를 정서주의와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 (라)에서는 정서주의의 장점과 도덕 실재론을 비교하고 있요

**오답 선지 확인하기**

- ① (가) : 규범 윤리학과 메타 윤리학을 구별하고 메타 윤리학의 두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② (나) :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③ (다) : 도덕적 판단과 도덕적 진리에 대한 정서주의의 견해를 소개하고 있다.
- ⑤ (마) : 정서주의에 대해 제기할 수 있는 문제를 나열하고 있다.

2.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⑤**

①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해 연구한다.

→ 메타 윤리학의 정의 그 자체죠? 메타 윤리학은 규범 윤리학에서 사용하는 개념과 원칙 자체에 대해 연구해요.

② 정서주의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윤리적 행위의 동기 부여와 직접 연결된다.

→ 도덕 실재론과 대비되는 정서주의의 강점이죠? 판단이 바로 동기부여로 연결됩니다.

③ 정서주의에 따르면, 과학적 진리와 마찬가지로의 도덕적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 맞죠? 과학적 진리와 같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④ 도덕 실재론과 정서주의는 '옳음'과 '옳지 않음'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식이 다르다.

→ 도덕 실재론에서는 과학과 같은 것으로, 정서주의는 사람의 감정에 기반을 해서 이해를 해요.

⑤ 도덕 실재론에 따르면, 도덕적 판단은 승인 감정에 의해 '옳음'의 태도를 표현한다.

→ 승인 감정은 정서주의죠? 반대로 말했네요.

3. ㉠을 이해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⑤**

→ ㉠을 반대로 말하면, 도덕적 판단이 바뀌려면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말이죠? 그에 해당하는 선지는 ⑤번 뿐이에요. 나머지 선지는 헛소리입니다.

- ① 도덕적 판단의 변화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 없다.
- ② 감정도 수시로 변하고, 도덕적 판단도 수시로 변한다.
- ③ 도덕적 판단과 달리 감정이 바뀔 때에는 이유가 필요하다.
- ④ 감정 없는 사람도 없고, 도덕적 판단을 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
- ⑤ 감정과 달리 도덕적 판단을 바꿀 때에는 뚜렷한 근거가 필요하다.

4.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④

— <보 기> —

A는 정서주의자이고, B는 도덕 실재론자이다. 두 사람은 모두 '옳음'과 '옳지 않음'이 각각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응한다고 본다. 또한 다음 두 예술적 판단에 대해, A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정서주의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B는 도덕적 판단에 대한 도덕 실재론의 설명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ㄱ) 예술작품 △△는 아름답다.

(ㄴ) 예술작품 △△는 아름답지 않다.

정서주의와 도덕 실재론을 비교하는 <보기>예요. A와 B 둘 다 '옳음'과 '옳지 않음'을 각각 '아름다움'과 '아름답지 않음'에 대응한다고 봐요. 그럼 정서주의는 '아름다움'이라는 감정을 표현한 것이고, 도덕 실재론에서는 '아름다움'이라는 객관적 성질이 존재한다고 보겠죠? 이를 파악했으면 문제는 쉽습니다.

① A와 B는 모두 예술적 진리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겠군.

→ 말도 안 되는 소리죠?

② A는 '아름다움'이라는 성질이 객관적으로 실재한다고 생각하겠군.

→ A가 아니라 B입니다. B가 도덕 실재론이에요.

③ A는 (ㄱ)과 (ㄴ) 중 하나는 '참'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참과 거짓을 따지는 입장은 도덕 실재론인 B죠.

④ B는 (ㄱ)과 (ㄴ) 중 하나는 '거짓'인 명제라고 생각하겠군.

→ 도덕 실재론의 입장과 완벽히 부합하네요.

⑤ B는 (ㄱ)과 (ㄴ)은 모두 예술작품 △△에 대한 감정과 태도를 표현한다고 생각하겠군.

→ 이러한 설명은 정서주의인 A가 말하겠죠? 정서주의의 핵심을 묻는 선지입니다.

5. ㉠~㉡의 사전적 뜻풀이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 : ②

① ㉠ : 판별하여 결정함.

② ㉡ : 규칙에 의해 일정한 한도를 정함.

③ ㉢ : 서로 의견이 일치함.

④ ㉣ : 의견이나 문제를 내어 놓음.

⑤ ㉤ : 서로 반대되어 어긋남.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2016.06AB [41~43]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고은, 「성묘」 -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뎅빛  
뿔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뿔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는 묻어 있을 것  
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닦이어져 어  
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뿔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뿔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  
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뿔마루에까지

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  
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뿔마루」 -

\* 눈 안에 선지가 생길 : 눈에 핏발이 설.

\* 서도 :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  
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  
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  
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  
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 저  
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  
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  
다.
-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  
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  
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⑤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집 뒤안'은 화자가 텃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  
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② '거울'은 손때가 텃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  
을 환기한다.
- ③ 텃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  
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④ 텃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  
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⑤ 텃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버지.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습니니다.  
 일제 시대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신 아버지.  
 아무리 아버지의 두만강 압록강을 생각해도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입니다.  
 아버지의 젊은 시절  
 두만강의 회령 수양버들을 보셨지요.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보셨지요.

화자는 아버지를 부르며 아직 남북통일이 되지 않았다고 말해 주면서 시작합니다. 아버지는 일제 시대에 소금 장수로 떠돌이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아버지는 두만강과 압록강을 왔다갔다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생각하면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따름이라고 하며 남북통일이 되지 않은 상황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고 있어요. 아버지의 젊은 시절에는 두만강의 수양버들도, 압록강의 붉은 물빛도 보았을 것이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모든 남북의 마을을 다니시면서  
 하얀 소금을 한 되씩 팔았습니다.  
 때로는 서도\* 노래도 흥얼거리고  
 꽃 피는 남쪽에서는 남쪽이라  
 밀양 아리랑도 흥얼거리셨지요.  
 한마디로, 세월은 흘러서  
 멈추지 않는 물인지라  
 젊은 아버지의 추억은  
 ㉡이 땅에 남지도 않고  
 아버지는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습니니다.

아버지는 남북의 모든 마을을 다니면서 소금을 파셨다고 해요. 때로는 서도의 노래를, 남쪽에서는 밀양 아리랑을 부르실 정도로 모든 지역에 대해 알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모든 지역을 떠돌면서 소금을 파셨기 때문이죠. 하지만 세월은 멈추지 않은 물이기에 아버지는 결국 돌아가셨고, 그것을 하얀 소금이 떨어져서 돌아가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남북통일이 되면  
 또다시 ㉢이 땅에 태어나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십시오.  
 “소금이여”, “소금이여”  
 그 소리,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십시오.  
 - 고은, 「성묘」 -  
 \* 눈 안에 선지가 생길: 눈에 핏발이 설.  
 \* 서도: 황해도와 평안도를 통틀어 이르는 말.

남북이 통일이 되면 다시 태어나셔서 남북을 떠도는 청청한 소금 장수가 되라고 합니다. “소금이여”라는 소금을 파는 소리를 남북 모두에게 듣게 하라고 하네요. 아버지의 모습을 회상하며 남북통일을 원하는 화자의 소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나)

외할머니네 집 뒤편에는 장판지 두 장만큼한 먹오딧빳  
 툇마루가 깔려 있습니다. 이 툇마루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그네 딸들의 손때로 날이날마다 칠해져 온 것이라 하니  
 내 어머니의 처녀 때의 손때도 꽤나 많이 묻어 있을 것  
 입니다마는, 그러나 그것은 하도나 많이 문질러서 인제는  
 이미 때가 아니라, 한 개의 거울로 번질번질 닳아어져 어  
 린 내 얼굴을 들이비칩니다.

외할머니의 집 뒤편의 모습을 알려주고 있어요. 집 뒤편에는 먹오딧빳 툇마루가 깔려 있어요. 이 툇마루에는 외할머니의 손때와 딸들의 손때, 그리고 어머니의 처녀 때 손때가 묻어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손때가 너무 묻어 한 개의 거울로 보일 정도라고도 해요.

그래, 나는 어머니한테 꾸지람을 되게 들어 따로 어디  
 갈 곳이 없이 된 날은, 이 외할머니네 때거울 툇마루를  
 찾아와, 외할머니가 장독대 옆 뽕나무에서 따다 주는 오  
 디 열매를 약으로 먹어 숨을 바로 합니다. 외할머니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치어 있는 이 툇마루에까지  
 는 어머니도 그네 꾸지람을 가지고 올 수 없기 때문입니  
 다.  
 - 서정주, 「외할머니의 뒤편 툇마루」 -

나는 어머니에게 혼아서 갈 곳이 없을 때는 이 외할머니네 툇마루로 갔다고 해요. 외할머니는 툇마루에 온 나에게 오디 열매를 나누어주며 친절히 대해줍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외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 나를 혼낼 수도 없기에 더더욱 안심이 되고 편안한 장소가 되겠네요. 툇마루에는 외할머니

의 얼굴과 내 얼굴이 나란히 비친다고 해요. 외할머니와 나는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알 수 있네요.

1.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 ④

① 유사한 시구를 점층적으로 변주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유사한 시구를 변주한 것은 둘 다 없죠?

② 부정적 현실에 대해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가)에서는 부정적 현실은 나타나지만, 그것을 관조하는 태도는 아니에요.

③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하여 동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 (가)에서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와는 관련이 없어요. (나)는 어린 화자의 목소리를 활용해 동화적 분위기를 조성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④ 색감을 드러내는 시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다.

→ (가)에서는 붉은 물빛 등의 표현을, (나)에서는 먹오뎅빛 텃마루 등의 시어를 활용해 색감을 드러내고 대상을 선명한 이미지로 제시하고 있어요. 옳습니다.

⑤ 역설적 표현을 사용하여 모순적인 상황에 대한 반성적인 자세를 보여 주고 있다.

→ 역설적 표현은 어디에도 없죠?

2. <보기>를 참고하여 (가)의 ㉠~㉣을 감상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정답 : ⑤

〈보 기〉

우리가 삶에서 경험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사람과 그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묘」에서도 '이 땅'은 실제로는 같은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과거, 현재, 미래의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는 다양하게 드러난다.

→ 장소는 사람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른 의미를 갖는다고 하며 「성묘」에서의 '이 땅'의 의미가 다양해진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아버지는 일제 시대에는 소금 장수로 '이 땅'을 떠도셨고 세월이 흘러 아버지는 '이 땅'에 남지 않고 돌아가시게 되었죠. 이렇게 시간적 배경이 변함에 따라 '이 땅'의 의미는 변하게 되었어요. 이 내용을 적용하면서 문제를 풀어 봅시다.

① 한곳에 머물지 않고 '떠도신' 아버지의 삶을 화자가 떠돌고 있다는 점에서 ㉠은 화자에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스러운 감정을 느끼게 하는 장소이다.

→ 아버지에 대한 원망? 말도 안 되죠.

② 화자가 ㉠과 관련하여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는 장소이다.

→ '국경 수비대의 칼날에 비친 / 저문 압록강의 붉은 물빛'을 언급해서 일제 시대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지 복원된 민족의 정체성을 깨닫게 한다고는 볼 수 없어요.

③ '젊은 아버지의 추억'이 사라지고 없다는 점에서 ㉡은 화자가 세대교체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세대교체를 통해 미래지향적 변화를 추구하는 내용은 어디에도 없어요.



④ 아버지가 '소금 장수'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모습을 통해 ㉠은 화자가 가업을 이어 아버지의 꿈을 실현하려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가업을 잇겠다는 내용이 아니죠?

⑤ '떨어져 가는 그 소리를 듣게' 하라는 표현을 통해 ㉠은 화자가 자신의 바람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임을 알 수 있다.

→ 완전히 옳은 설명이에요. 자신의 바람, 즉 남북통일이 현실화되기를 희망하는 장소라고 알 수 있습니다.

3.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 ①

① '집 뒤안'은 화자가 툇마루에 담겨 있는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음을 보여 준다.

→ 화자는 어릴 적 외할머니를 회상하고 있는데 그 유년 시절과 단절되었다? 오히려 화자의 어릴 적 시절과 연결해주는 공간이죠?

② '거울'은 손때가 툇마루에 쌓여 있는 오랜 세월의 흔적을 환기한다.

→ 많은 손때가 묻어 거울처럼 반질반질해졌다고 했어요.

③ 툇마루는 '꾸지람'을 들은 뒤 찾아가 위안을 얻었던 화자의 경험을 환기한다.

→ 외할머니가 주던 오디와 툇마루의 분위기는 화자에게 위안을 주었어요.

④ 툇마루를 찾아온 화자에게 외할머니가 건네 준 '오디 열매'는 외할머니의 사랑을 드러낸다.

→ 외할머니는 내가 혼나고 툇마루로 오면 '오디 열매'를 주곤 했어요. 외할머니의 사랑이라고 볼 수 있죠?

⑤ 툇마루에 비치는 '외할머니의 얼굴'은 화자와 외할머니 사이의 친밀감을 드러낸다.

→ 툇마루에는 내 얼굴과 외할머니의 얼굴이 나란히 비치고 있어요. 가까이 있고, 시적 상황에서도 외할머니는 나에게 애정을 주고 있습니다. 친밀하다고 볼 수 있네요.